

건강 칼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소아암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암 발생이 드물고, 암의 종류와 성질도 완전히 다르다. 또한 소아암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도 성인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아암은 완치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치료율이 높다. 따라서 소아암에 걸렸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암의 증상과 진단

소아암은 출생 당시부터 만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며, 대표적으로는 백혈병과 신체장기에 덩어리가 생기는 고형종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백혈병이란 뼈 속의 '골수'라는 곳에서 정상적인 혈액세포가 아닌 암세포가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는 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정상적인 혈액세포는 만들어지지 않는 병이다. 따라서 백혈병의 증상은 암세포로 인한 발열이나 뼈통증이 생길 수 있다. 뼈통증은 골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백혈병세포 수가 늘어나다 보면 주변의 뼈조직을 압박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뼈통증은 아이들의 경우 팔다리가 아프다거나 잘 걸지 못하는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빈혈 증상, 백혈구가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세균감염, 혈소판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출혈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한편, 백혈병세포가 혈액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일부 장기에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잇몸이 비대해지거나 비장이 커져서 배가 불러온다든지, 림프절이 커지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증상 중에서 일부라도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 신체진찰과 혈액검사를 시행해보아야 한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 백혈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확진을 위하여 골수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골수검사를 많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소 혹은 전신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에 긴 주사침으로 뼈 속에 있는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이므로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요즘은 뼈 속의 혈액을 채취하여 현미경적 검사, 특수 면역 염색방법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백혈병의 종류와 특성까지 진단을 하고 있다.

▲소아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

소아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인 백혈병은 항암제 치료기 기본이다. 백혈병의 종류에 따라 치료 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단 이후 초기 몇 개월은 입원해서 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3년간 외래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급성림프모구백혈

병이 재발 경우라든지, 예후가 좋지 않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암제 치료이외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조적적합환원이 일치하는 형제간 조혈모세포이식이 가장 좋지만, 형제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80~90%의 환자들이 타인의 골수나 말초조혈모세포,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에 다가갈 수 있다.

소아암 중에서 덩어리가 생기는 고형암에는 뇌종양이 가장 흔하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뇌종양은 뇌척수액의 순환하는 공간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뇌 고형암에는 뇌종양이 가장 흔하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뇌종양은 뇌척수액의 순환하는 공간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뇌 고형암에는 뇌종양이 가장 흔하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뇌종양은 뇌척수액의 순환하는 공간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뇌 고형암에는 뇌종양이 가장 흔하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뇌종양은 뇌척수액의 순환하는 공간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뇌 고형암에는 뇌종양이 가장 흔하다.

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뇌 CT나 MRI, PET 등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뇌종양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수술과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 치료로 완치시킬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고용량 항암제 치료 및 자가 말초조혈모세포이식 방법 등을 도입하여 완치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완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소아암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500~2,000명 정도의 환자에서 새로이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 도중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들로 인하여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모두에게 힘든 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약제들의 개발과 다국가 간 임상 연구나 다기관 임상 연구가 활발해진 덕분에 현재 소아암의 완치율은 약 80~90% 정도에 달한다. 과거에는 소아암으로 진단 받으면 환자보호자뿐만 아니라 의 사들조차도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료에만 급급했다면, 요즘은 완치 후의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아암을 완치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 이해하고 합심하는 노력이 있다면 이러한 고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소아암은 완치 후에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기간 중이라도 학교복귀를 위한 병원학교의 활용 및 원격학교로의 빠른 복귀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설

국가균형발전 이제 동서를 축으로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여망을 받들어 지역 발전의 생두마차 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에게 기대했던 말이 다시 또 생각한다. 도지사는 저번에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국가의 발전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를 남북축으로 발전시켜왔다면 이제는 동서를 축으로 해야 한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한국은 분단 이후 수십년 동안 남북을 축으로 발전의 판도를 그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간지점의 신도시 대전이 광역시로 급성장했다. 1949년에 전주까지 시로 승격되었을 때 대전은 이쪽의 태인과 함께 읍이였을 뿐인데 말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옛적의 일이라도 격세지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지금은 동서 발전을 축으로 지방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우리 전북의 경우는 동쪽이 경북이고 경남이다.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북과 경남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북과 경남도 공감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함께 추진하는 게 전북 발전의 첩경이 되리라는 판단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는 이번에도 특이로 전략한 입장이므로 전북의 동서 철도 건설 등의 현안에 예산과 다른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그들과 머리를 맞

대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도민의 숙원은 그 언제나 지역 발전이냐가 말이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 모두 합심하는 자세와 뜻을 같이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본보가 사실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했거니와 그 실상을 보자면 아쉬운 게 하나들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할 때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신에는 자존심도 필요하다. 예전에 도세가 전북보다 못했던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 예전에는 군산이나 이리의 절반도 안되던 수도권의 읍 단위 도시들이 이제는 전주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 충청도의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전주를 추월했거나 따라잡을 할 기세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 지역은 거주 인구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쪽은 감소 상태라서 여간 서운한 게 아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생두마차이므로 다른 시군의 단체장들보다 그 책임이 크다. 예전에 도지사는 '스그람 행진'을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도내 각 시군의 입장을 챙겨주고 리드해 나가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동서로 돌려잡도록 그 역량을 한껏 발휘해 주기 바란다.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욕심 내야

전북도는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욕심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전북도는 정부의 공모에 응한 결과 좋은 성적을 보여줘 도민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것은 분명히 제 몫 잡기의 표본 같은 것이었다. 전북도는 올해도 반드시 성과를 보여줘야겠다. 이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을 위해 머릿속이 복잡할 터이니 말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사업에 5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사업 기간 동안 있을 몰가 인상을 감안해도 정부가 밝힌 그 50조 원은 거대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 한 해 예산이 7조 원이 못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전북도내 정부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계속 주목하라는 이유는 그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는 사업의 선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정부는 그렇게 했고 지

난해 전북도는 도민의 뜻에 부응해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정부는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 제 몫 찾기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방심했다가는 서울시만의 잔치판이 될 수도 있음이다. 서울시가 '수도권 맞춤형 정책'으로 위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연대해 제 몫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도내에 혜택을 줄 것이지만 그래도 마냥 낙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의 소산이 될테니까 말이다.

본보는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한다고 여러번 재촉한 바 있다. 특히 전주시를 향해 그런 말을 자주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익산시와 군산시를 포함해 다른 시군들도 욕심을 내볼 일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 몫을 붙잡기 위해서는 버리고 있어야 한다.

독자재언

며칠 전 발일을 하던 노부부가 집안 일로 말다툼을 한 후 아내가 화장에 제조제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 전주소재 종합병원에 이송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다. 진안지역은 심심치 않게 자살 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현재도 자살추경 기술 실종자 수백으로 연일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어 가족의 심정으로 발견을 위한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이후 현재까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12.1명의 2.4배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 동안 자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의 성과로 최근 통계에서 자살률이 부분적으로 감소하긴 하였으나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한창 일을 해 나가야 할 연령대의 자살률은 아직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0명 이내, 연간 자살자 수 1만 명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 자살예방

행동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세계수준의 노동시간과 높은 업무강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잠재적인 정신건강문제의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살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인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의 자살기도 및 자살신고 접수로 인해 경찰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협력 기

관·단체와 합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마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그럴 용기로 다시 한 번 죽었다 생각하고,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거 용기 내어 살아보면, 삶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자살...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살자!!! 누구나 고귀한 생명이고,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이며, 누구의 아들, 딸로서 소중한 존재이다. 전근수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